



제274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현안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추가 설정 건의안 채택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제27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전자투표기 시범도입에 따른 설명 및 시연 계획, 의원공무국의 연수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한장 운영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또한 도의회의 선진화전략과 의원의 역할, 행정



▲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을 심의하였다.

사무감사기법 및 착안사항, 2009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진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진천 장관·이원 교환부지, 청주 노인회관 증축 부지를

방문하고 괴강 관광지와 증평 지역박물관, 공설시장 신축현장,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부지현장, 포도연구소,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등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문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997년 개항초기 이용객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공항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07년 드디어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금년도 10월부터 24시간 공항운영과 국제선 활성화 등을 통해 진정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때, 이번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내용 중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논의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여망인 공항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공항이용료와 항공요금 상승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충청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시기상조임을 거듭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충청북도의 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충청도민을 외면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적극 반대한다!

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주공항에 국제노선을 확대하라!

셋, 청주공항이 중부권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적극 반영하라!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님!

2008베이징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국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한 것 또한 매우 반갑고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때 강원도 고성으로의 국회의정연수원의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이 교육받는 장소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

을 수 있는 접근성과 국회연수의 특성상 국가안보적 측면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0만 충북도민은 국회연수원 입지선정은 18대 국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국회토론회 등 국민의 공론수렴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 되어야만 추후라도 이를 둘러싼 불합화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제천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등 3개 철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국도의 연계성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제천에서 개최할 계획으

로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과 국회연수원 건립을 연계한다면 국가발전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받은 중부내륙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 등 중부내륙지역 공동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우리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연수원의 입지는 보편성과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수원의 건립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개 회 사

서민경제 안정과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대응에 힘모아야...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두 달 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장과

주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지난 추석명절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활발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재난예방관리를 비롯하여 을지훈련, 에너지 절약,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장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9월 중순입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

책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국회연수원 유치 등 우리지역 현안과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대응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한해동안 피땀 흘린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9일간의 일

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고 특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 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지역균형발전 및 중부내륙벨트 수용 강력 촉구

오 응 식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전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대상 중 일부기관이 폐지·통합되어 규모가 축소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충청권 핵심사업 및 개발사업 등이 축소·배제되고 충청출신 인사들이 중앙에서 소외됨으로 인하여 충청인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차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광역경

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은 물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충청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 공항 간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시정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고 충북·경북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증평~보은~영동~무주로 이어지는 남북 3축 보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 벨트 수용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충북도민의 희망과 큰 뜻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및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대처 촉구

최 미 애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어려운 지방재정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여야를 떠나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충북도민, 그리고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강남 부자들에게 부과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과 사회기반 시설확충사업, 교육사업과 농업관련 사업 등에 충당되던 부동산 교부세의 근간을 흔들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정정부는 강남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싸움 끝에 기를 쓰고 마련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이었습니니다.

이에 집값도 차츰 안정이 되고 있는 이때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위 2%도 안 되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재정 감소분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기 위해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서민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도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추동하여 쉼기대회 등을 조직하여 반대시위를 분명히 하고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반대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로 보내는 한편 의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반대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이며,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지방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눈 똑바로 뜨고 지방을 직시하라고 여야를 떠나서 말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등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18일 회의를 열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7,957만원보다 1.24%인 8,791만원이 감액된 69억9,1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절감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75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도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금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의원 연구활동계획은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에 의원이 지난 9월 4일 충북지역 아동센터 발전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연구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본 연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 의결하였다.

간담회 ▶

9월 18일 회의에 앞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예산안 심사

9월 18일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스템의 개선 대안 제시 등



▲ 동의안 심사 9월 23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홍)는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열린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등을 전개하였다.

먼저, 9월 19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진천군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의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부정적하게 보조금을 집행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현행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세출예산 통계목에 계상된 경비」로 명확화해서 용어를 정리하였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9월 22일 열린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살리기, 고부가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추경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충북미래상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2억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 의결하였다.

특히, 9월 23일 열린 제4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의 심의과정에서 행정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

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심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지적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충북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 등의 4건은 삭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향후 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 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밖에, 공동시설에 부과지역 변경안의 원안결과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등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바쁜 회기일정을 소화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간담회 ▶

9월 18일 충청북도 교육청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예산안심사

9월 19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현)는 제274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분원설치운영계획을 보고받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앞장섰다.

9월 19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 급변 추경에 재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노인관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비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일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선심성 예산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또한, 추경예산 심의결과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등 3건에 12억1천만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으며,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 종별 처리기간 단축과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성립 전 예산사용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분원설치운영계획관련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해 질의하며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08년도 제2회 추경심사 및 도정사업 현장 방문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제274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옥천재래시장 등 도정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22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기관단체 한마음대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소모성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각종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하였다.

이어 열린 농정국의 심사에서는 영농규모, 소득수준,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여 2010년까지 12천명의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구축을 추진하려고 당초예산

에 계상된 사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심사에서는 예산 10%절감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농약품목등록 시험 예산절감 100%등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절감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치밀하게 분석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9월 23일에는 옥천재래시장,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신축부지, 포도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박종갑위원장은 옥천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요즘 재래시장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며 이는 노후된 환경과 상인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옥천군민의 생활터전인 옥천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예산안심사

9월 22일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현지확인

9월 23일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신축부지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 및 건의안 채택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증평지역박물관 건립, 괴강관광지 조성 및 청천~문광간 국지도건설사업 현장 등 현지 확인을 하였고, 미래 충북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초광역 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 등 3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관광홍보 관련예산 편성 시 한 가지 예산으로 묶어 편성하지 않고 충북테마기행책자발간, 충북관광도약의해 선언 홍보영상물 제작, 관광홍보 매체 관리, 관광홍보물제작, 관광홍보관 정비 등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이유와 유사한 홍보예산의

추진방향과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어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 변경계획에 의한 도유토지 출자액 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예산과 전문체육진흥사업 삭감 후 다시 편성하는 사유와 전문체육진흥사업 전국체전훈련비가 얼마 남지않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였다.

또한, 최근 '충북홀대론'에 대한 여론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과 국회, 정부 등(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초광역 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추가 설정 건의안,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간담회 ▶

9월 18일 충청북도 문화헌장 조례안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현지확인

9월 19일 증평지역 박물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및 연찬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제274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4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하였다.

이번 최종심사는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소방, 교육사회, 산업경제, 건설문화)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

최종심사 결과를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 행사·낭비성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사업추진효과 미흡하고 판단 되는 예산 등 11개 사업에서 18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91억원을 절감하여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인 433억 6,131만원이 증액된 2조 5,750억 6,532만원으로 예산액을 확정하였다.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계	2,531,704	2,575,065	43,361
일반회계	2,104,130	2,148,356	44,226
특별회계	427,574	426,709	△ 865



▲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연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틀간 레이크힐스 호텔속리산에서 자체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도와 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매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도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심사 기법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관계관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편성 및 주요 사항 설명과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빙하여 지방재정의 이해와 심도 있는 예산심사 요령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차별화된 예산심사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등 예산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키는 연찬회가 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충청북도의회는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한창동 의원, 부위원장에게 김법기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강태원, 권광택, 김광수, 송은섭, 이규완, 장주식, 최광욱의원 등 9명을 선임하였다.

특위의 임기는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 26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용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는 방안, 집적조성을 위한 분산 배치 저지, 정부의 입지선정 기준 세부평가 준비, 실질활동 유치위원 보강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유치논의를 하고, 과거 태권도 공원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타도로 결정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하였다.

특히, 특위 차원의 유치활동 전략을 모색하여 실행하기로 결의 하는 등 유치에 대해 위원들이 강한 의지와 관심을 보였다.



한창동 위원장



김법기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



권광택 의원



김광수 의원



송은섭 의원



이규완 의원



장주식 의원



최광욱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한창동 위원장

우리도의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선정후 30년간 99㎡의 규모에 5조 6천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1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우리도의 오송·오창지역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가지정 국내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로서, 현재 국내 유수의 56개 제약회사와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이전 확정된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5개 연구지원 시설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이며,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시설 활용으로 초기투자비 8천억원중 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국가미래발전의 최적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정치적 논리로 나라의 미래를 흔들 수 없는 실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충북지역에서는 첨단단지 유치를 위한 100만인 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107만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땀땀 땀 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오송·오창에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지역발전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합심노력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가정책 추진방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서 전국 각 도중 유일하게 우리 충청만이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전 도민의 가슴속에 누적되어 왔던 소외감을 다시금 자극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은 예로부터 서울

과 지방,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토내륙의 중핵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중간에 위치하여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어 온 지역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을 따라 자리잡은 3대 국립공원과 댐 개발로 인해 환경보전 등 각종 규제는 엄청난 반면, 정부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토의 각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인프라 구축 및 첨단산업 R&D 기반이 집적되어 있고,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전국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4X4 고속도로와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등 광역교통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대덕연구단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동북아 IT·BT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송·오창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원주 기업도시가 미래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따라 산재한 아름다운 산수관광자원과 중원문화권을 비롯한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등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초광역개발권 내 핵심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민심을 아우르고, 산업·문화관광 인프라 등을 융합 형성한다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 설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새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지

역발전정책의 최우선적 성공요인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달성하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제시한 모자형 4대 벨트를 국토중심의 내륙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국토융합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중부내륙 첨단산업 관광벨트'를 추가하여, 전국 5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간곡히 건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의원칼럼

문화경쟁력, 구호만으론 안된다



김 화 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문화의 계절이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문화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영화가 세계 3대 국제영화제에서 당당하게 수상하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고, 한국 출신 예술가들의 활약상도 수시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행사를 살펴봐도 세계 유수의 문화단체들이 직접 찾아와 한 상 가득 화려한 상을 차려놓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영화제를 위시한 광주 비엔날레 등과 같은 국제 규모의 예술행사가 우리의 손으로 기획돼 외국인들을 집안으로 불러 모으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예술에 투자되는 예산도 날로 많아지고 있다. 화제를 모은 뮤지컬 한 편 당 제작비가 10억 원은 가볍게 넘어서고 있으며 블록버스터급 영화 1편 당 제작비가 10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문화 활동 제작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제작비 투입 현상은 갈수록 더 많은 볼거리를 원하는 문화 향수층의 욕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몰량공세에 밀려 제작비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문화단체 위축과 예술인의 현실이다. 거대 문화자본으로 중무장한 기획 프로젝트에 맞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는 지역예술단체가 맞서 살아남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 대결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쳐진다. 막대한 자본으로 화려한 볼거리,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펼치는 예술행사를 보아온 사람들의 눈에 지역예술인들의 소박한 활동은 관심을 끌기 어렵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오던 예술인들마저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

며칠 전 충북도가 민선4기 16조원 경제투자 유치의 결과에 힘입어 앞으로는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선진도'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북문화발전중장기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까지 2900억 원을 투입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예술 창조력 제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0억 규모의 충북문화재단 설립 도립예술단 창단 지역예술 활동 사업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102곳 추가 등이다.

충북도는 이전에도 10년마다 한 번씩 문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해왔다. 그간 발표된 중장기 계획안도 이번 에 발표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도서관, 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 등 이번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충북문화는 얼마만큼 발전해 왔을까.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흥미로운 도내문화지표를 발표했다. 도내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도서관 1개소 당 인구 수가 5만7,483명, 박물관 6만4,981명, 미술관 29만8,912명, 문예회관 18만6,820명, 문화의 집 21만3,508명으로 집계됐다. 도서관은 전국에서 경기 11만162명, 경남 7만50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문

예회관은 제주(55만8,496명), 경기(49만5,729명), 경남(19만8,304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문화기반시설은 10년 전에 비해 발전된 것이 없었다.

지역문화시설 부족과 지역예술 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충북의 문화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43.0%)이 긍정적 응답(5.2%)보다 높았으며,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10.4%)보다 불만족(34.6%)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 문화행사에서 보완할 점으로 △수준향상(31.4%) △많은 지역에서 개최(22.7%) △관람비용 저렴(15.47%) △제도적·경제적 지원 확대(15.28%) 문화행사 수 확대(13.25%)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없이 는 이처럼 도민들의 문화적 박탈감과 불만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충북도의 문화발전중장기계획에 거는 기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소리만 요란한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청사진은 사절한다. 작지만 실현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잡아 한 해 한 해 실천해 나가는 옹골찬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

독자칼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진 영 진

전 교육사회위원회 자문위원
현 청주시 교육심사위원장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는 이대원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제8대 충청북도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가 올바른 도정발전을 위해 통제·견제·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예산 절감, 조례 제·개정, 도정에 대한 건의 등 현안에 대하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심도 있게 펼친 의정활동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의원 선거제도

첫째, 재·보궐 선거를 폐지하고 유고시 현 교육위원 선거제처럼 본선에서의 차점자가 승계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총선에는 투표율이 비교적 높지만 재·보궐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해 당선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의심할 정도이다.

둘째,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의원·단체장직을 도중에 사퇴하고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법제화)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그 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했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출마당시 유권자와 4년간(임기) 의원직을 수행한다고 약속하고서 도중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요 나아가서는 국고 손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기 중앙정치의 예속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현재 의원입법으로 법안 국회에 제출 중)

의원연수

첫째, 해외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도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양

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의원연찬회를 20여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내 모 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추문이 들려 도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외연수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는 예산절감차원이나 국가경제 위기를 유권자와 함께 타개한다는 뜻에서 자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면 사전에 치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가급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과 관련된 분야의 선진국을 택하여 정치,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원동정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9월 24일 청주시 가정동 가정터미널 시장에서 열린 공동쿠폰발행 1주년 성공 경품대잔치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9월 26일 도청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원지역(오송, 오창)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2차 회의 개최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10월 18일 진천 화랑관에서 개최된「제18회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예정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민주당)

10월 5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연변 여성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9월 27일 제천시 수산면에서 열린 2008 충청북도 수산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10월 12일 보은군 생활체육공원 및 탄부면 일원에서 열린 생활체육대회 및 친환경대추축제 준비 및 관계자 격려 예정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10월 11일 괴산군 청천환경문화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회 청천환경문화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예정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9월 30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3회 충청북도 선진교육포럼에 참석, 보육관련정책 토론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9월 30일 오창읍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재)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제22회 이사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희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9월 27일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단양 생활체육대회 주관, 대회사 및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10월 24일 충북대 개신관에서 개최된 충북 헬리지2008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예정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9월 24일 단양군에서 열린 효 나눔센터 개관식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9월 11일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선교복지회(원장 백영호)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과 같이 시설을 살펴보고 원생 격려 및 위문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9월 10일 괴산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2회 괴산군 사회복지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축하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9월 24일 음성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27회 설성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0월 6일 제천시에서 열린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기공식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10월 2일 충주시 탄금대 유엔평화공원에서 열린 2008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9월 4일 옥천군 옥천읍 옥천향교에서 열린 향교 석전제에 참석, 축하 및 참가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9월 26일 진천군 화랑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친환경농업실천남여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의견수렴.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9월 27일 아름다운가게 문화점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운영 및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0월 1일 보은군 회인면에서 열린 회인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10월 6일 음성군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9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현안 논의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9월 29일~30일 구미에서 열린 전국주부교실 회장단 회의에 참석, 현안사항 토론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9월 26일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충청북도 잣소경진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9월 27일 청원군 미원면 미원잔디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쌀안축제에 참석, 축하 및 참가자 격려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10월 15일 청원군 오송에서 실시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예정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10월 3일 2008 증평 문화홍삼포크 인삼축제 개막식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은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0월 2일~8일까지 충주시 금가면 가흥리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고미술축제에 참석, 상임고문으로서 축제 총괄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9월 30일 영동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영동군 축산인 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